



누가 누가 잘하나

성악 초등부문 참가자들의 경연 모습. 왼쪽부터 심희원(빛고을초 2년), 권하윤(송원초 2년), 안승민(장산초 1년), 배유리(풍영초 1년), 전건일(불로초 1년), 최예린(살레시오초 2년), 박현선(서광초 2년), 이지현(송원초 2년), 허민서(장산초 2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무대... 추억 한아름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53회 호남예술제가 경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무용·음악·국악·작문·미술 등 5개 분야에 참가한 예술 꿈나무들은 지금껏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추억을 만들어갔다. 최선을 다하는 경연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나명주·최현배기자 mjna@kwangju.co.kr



미래 슈퍼스타

서광초 5인조 그룹 사운드 'BLAST'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봉하운(2년)군이 멋진 기타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젓 먹던 힘까지

광양제철초 관악합주단 트럼펫 주자들이 젓먹던 힘까지 다해 연주를 하고 있다.



우리 것이 좋은 것

가야금, 피리 등 국악기가 어우러진 흥겨운 연주에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국악관현악합주단의 연주모습.



튜바와 소년

멋진 화음을 만들어야지. 나주초등학교 관악합주단원이 튜바를 연주하고 있다.

장수온돌침대

효광초등학교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동요를 부르고 있다.

시원 (5조한성) ₩1,490,000 | 빅토리 ₩1,380,000 | 빅서리 ₩850,000

하이파리세움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원 4인식탁 ₩690,000 (한조한성)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